

음악학 지식의 조절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

윤성원

연구의 목적은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교과교육이 내용을 조절¹⁾해 확장된 인터페이스²⁾를 가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배경은 전문화된 그러나 고립된 음악학의 지식을 사회와 소통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악학의 존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역시 고립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정체성마저 모호한 작금의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조절함으로써 음악교과교육의 ‘존재론적 증명’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음악학의 지식이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체로 공교육으로서 음악 행위를 주도하는 음악교과교육을 선택하고, 텍스트 중심의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영역이 음악학의 지식을 조절하고 평형을 이루어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교과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설계하는 데 있다.

* 검색어: 음악학, 음악교과교육, 음악과 교육과정, 교과내용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내용 설계 |
| II. 연구 배경 | V. 요약 및 제언 |
| III. 조절 방법: 기준 | |

I. 서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교육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을 예의 주시하고 인지하여 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작금의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서 ‘창의와 인성’의 강화를 천명하고 있고, 편제에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 교육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 논문은 제출일(2011.06.30) 이후에 두 곳의 학술대회—한국음악교육공학회(2011.07.16)와 한국교원대예술연구소(2011.08.04)—에서 ‘음악학의 조절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1)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절’(accommodation)이란 용어는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인지발달 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에서 ‘동화’(assimilation)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이다. 연구자는 ‘동화’는 음악학이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언급은 극소화하며, 철저히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이 스스로를 변형시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 ‘조절’이라는 용어를 제목에서부터 사용한다.
- 2)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컴퓨터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따위를 서로 이어 주는 부분, 또는 그런 접속 장치’ 혹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인터넷네이버사전 2011.06). 또한 확장된 의미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현상과 현상을 연결하여 주는 장치를 말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음악교과교육과 공교육 일반을 연결시키는 부분 또는 장치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때,— ‘창의·인성교육’이다.³⁾ 따라서 공교육에서 공통교과로 행해지는 음악교과교육은 음악수업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보다 질 높은 학습 기회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의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연구자는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⁴⁾ 문제는 ‘기본은 무엇이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인데, 연구자는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면에서의 기본은 음악학과 교과교육학의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에 의한 평형(equilibrium) 상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러한 기본 상태 위에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고, 체계를 지어 교수·학습을 이룸으로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음악교과교육을 스키마(schema)로 본다면, 음악교과교육의 기본은 음악학과 교과교육학의 지식이 동화와 조절을 이루어 평형을 유지하는데 두어야 한다. 기본을 유지하며 안정된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과 카오스 상태로 느껴지는 학교교육현장을 접하였을 때에 또 다른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의 인터페이스를 확장시키는 스키마 변형(schema change)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음악학은 순수학문으로서 2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문화된 그러나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비실용적인 학문, 고립된 지식으로 낙인 되어 작금에 이르러 존재 가치를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음악학자들은 음악학의 지식들을 사회와 소통하고 적용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권오연 2010, 5-8).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학자들이 찾는 음악학의 ‘존재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있어 음악교과교육의 방법으로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동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의 단초를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역시 고립되고 실기위주의 방법론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공교육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모호한 작금의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조절함으로써 음악교과교육의 ‘존재론적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 연구와 같은 소고를 통해 방대한 음악학의 지식들과 음악교과교육의 전 분야를 다룰 수 없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교과교육이 내용을 조절해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가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제시하는 설계의 결과는 기초 단계로 국한한다.

- 3)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간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작금의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인 ‘창의·인성교육’이 이 질문의 답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현시점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CRM(창의체험자원지도,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edupot(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등 새로운 도구와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16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교원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현장으로 관련 공문과 책자를 보내 이를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전 교과와 구성원에 걸쳐 어느 정도 넓혀져 있다. ‘국·수·영·사·과’의 주요 5교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악교과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나마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
- 4) 음악교과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정부주도에 의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이 음악교과교육자들에게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카오스 상태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를 수용하기에는 음악교과교육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수동적이고 피상적이며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

II. 연구 배경⁵⁾

1. 음악교과교육의 변화 요구

2009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교과는 미술교과와 함께 묶여 예술교과로 통합되었다. 그나마 기존의 시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음악교과교육의 명맥을 이을 수 있게는 되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위한 사전 공청회 등에서 진행되어오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차후 공교육 일반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해서는 불안한 입장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의 세 가지로 음악교과교육이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상고한다.

첫째,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의 도구이다. 음악교과교육은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public education)⁶⁾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교육이다. 다시 말해 음악교과교육은 넓은 의미에서의 음악교육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은밀히 상고해 볼 때 공교육의 도구로서 음악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여러 교과교육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음악을 교육시킨다는 목적보다는,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공적인 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윤성원 2010a, 3).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에서 목적하는 바인 ‘훌륭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현장에서 작금의 사회에서의 유용성에 의해 상호 유기적인 변인을 도출하여, 교과 내용을 선정, 교수·학습함으로써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과 내용 및 형식을 예의 주시하고 인지하여 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⁷⁾

둘째, 공교육 일반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 문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그 설계·제작·고시 과정이나 참여자, 그리고 그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초·중등학교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을 극명하게 나타내어 주며, 해당 시기의 공교육 일반의 환경을 읽어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는 공교육 일반의 환경 변화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읽기를 한다.⁸⁾ 우선 첫 변화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창의와 인성’

5) 2장 연구배경의 기술은 제1절의 기술이 제2절의 기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다시 제2절의 기술이 제3절의 기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제1절부터 제3절까지는 인과관계로 묶여져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읽도록 한다.

6) 공교육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갖는다. 공교육에 의해 육성되는 훌륭한 국민에 대해, 교육기본법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일부개정 2005.03.24 법률 7399호,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교육의 이념) 요약)하는 국민으로 규정한다(윤성원 2010a, 3-4).

7) 이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음악교육공학 10호에 게재한 논문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2010)’의 1-17쪽을 참고하라.

8) 이 연구에서는 현행 2007년 개정 교육과정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관심을 두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

강화를 개정 취지로 천명하고, 편제에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 교육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규정하여, 편성·운영에서 ‘창의성과 인성’ 강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따라서 작금의 초·중등학교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은 ‘창의·인성교육’이다. 이 연구의 진행시기는, 2009년 12월 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래, 2011년 6월 말 현 시점에 이르러 총론에 근거한 각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론이 발표되기 바로 전 시기이다. 물론 각론에 이르러서도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인 ‘창의·인성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내용으로 삽입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3학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개정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8과목 이내 축소’와 ‘집중이수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한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이하 자동봉진) 비교과 교육활동의 실시’, ‘교육과정 자율화에 의한 과목별 20% 자율증감 운영’이 전 학년에 걸쳐 시범 또는 적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별로 1개의 단위학기에 8개 교과만을 이수할 수 있게 하여 국·수·영·사·과의 주요 5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과들은 집중이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교과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20% 증감시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이러한 공교육 일반의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창의·인성교육’의 수용 방안을 교과 내에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편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와 미술교과는 자의든 타의든 예술교과로 한지붕살이를 시작했다. 선부론 판단일 순 있겠지만 정부로부터 통합교과로의 요청이 곧 있으리라 예상된다.⁹⁾ 그리고 연구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완성될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에 의한 통합 예술교과의 실체는 통섭(統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섭(通涉)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교육 일반의 배경을 저변에 두고 통섭 예술교과를 상고할 때, 음악교과와 미술교과가 어우러져 새로운 제3의 영역¹⁰⁾으로의 예술교과가 만들어지기(統攝)는 어려우며, 오히려 음악교과와

총론이 작금의 공교육 일반을 판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9) 작금의 시점에서의 통합교과로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통합학문에의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교육 내에서도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분과된 학문들의 통합학문으로의 요청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화가 교과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학문에의 요청은 학문 내적인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실용적이거나 실천적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자는 오늘날과 같은 분과학문체계가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가로 막는다는 학문적 반성에서 나오고 있고, 후자는 융·복합적 지식들이 경제발전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 인식에서 나오고 있다(김세균 2009, 194). 둘째, 각 교과교육은 공교육 일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과된 도구라는 인식에서이다. 즉 공교육 일반에서 추구하는 바가 음악교과와 미술교과를 통해 음악과 미술의 전문인 양성에 있지 않고,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아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교육과학기술부 2009, 1)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굳이 음악과 미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교육 일반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며 따라서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통합 예술교과를 요청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입장의 교육학자들이 교과교육의 설계의 단계에서, 교과를 ‘개별 학문을 교육적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김영석 2008, 26)이라고 인식하고, 예술교과의 내용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술학이 이미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작금의 상황에 착안하여, 통합 예술교과가 어찌든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통합 예술교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의 통합 예술교과는 음악과 미술뿐 아니라 다른 예술 영역도 함께 대부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터이지만 말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교과 간의 융·복합을 모색해 큰 틀에서의 예술교과로 통섭(通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이다.¹¹⁾ 그런데 두 교과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교과 간의 융·복합을 모색해 큰 틀에서의 통섭 예술교과로 나아가기 위해 음악교과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²⁾

셋째, 음악교과교육의 존재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음악교과의 경우, 특정학년 특정학기에는 블록타임을 적용한 주4시간이나 주2시간의 시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학년과 학기에는 전혀 음악교과를 배우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음악교과에서 시수의 20% (증)감이 이루어진 곳도 있다. 최근에는 2012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로써 내신성적산출이나 입시에 관련되지 않으며, 주요 5개 교과에도 포함 되지 않으며, 비교과 교육활동에도 속하지 않는 교과인 음악교과는 시수의 20% (증)감 대상 교과가 될 경우의 수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는 예술교과 안의 한 영역이 되어 공통교과로서의 위상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에서 존재하였던 이유와 존재하여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민경훈은 그 이유에 대해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술의 원초적인 핵심은 음악이다. 둘째, 음악 교과에서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음악은 예술의 기본 장르이다. 넷째, 음악은 예술 교육 이전에 인간 교육이다. 다섯째, 음악 교과는 음악적 지식 체계와 음악적 사고 방법을 요구하는 독립 교과의 영역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인적 인간 육성 및 인간 지능의 균형을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 음악 교육은 문화유산 전승 과정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민경훈 2009, 24) 민경훈의 일곱 가지 이유 중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성교육’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넷째 이후부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음악교과교육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에 운영되어야 할 방식은 어떠한가 할까? 음악교과는 교과의 특성 상 교과의 틀을 벗어나 비교과 교육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인 ‘자동봉진’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음악교과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실기위주의 방법론이라는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수동적이고 피상적이며 협소하기까지 한 인터페이스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0) 말하는 제3의 영역이란 통섭(統攝, consilience)에 의한 영역을 의미한다. 통섭은 영역 간에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준성 2008, 68; 박행렬 2009, 123).

11) 이러한 방식은 ‘미분화된 아메바적 통합’(統攝)이 아니라 음악교과와 미술교과가 분화된 기능을 맡으면서도 ‘예술’이라는 통합된 영역 속에서 유기체처럼 결합해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분화에 기초한 고차원적인 통합’(通涉) 교과를 추구하는 것(김세균 2009, 194)이다.

12) 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어야 할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은 유보하기로 한다.

2. 음악교과교육의 인터페이스

,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음악교육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초·중등학교 현장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한다.

첫째,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학교에 영향을 주는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급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한 부분으로 학교 현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현장의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즉 학교교육계획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 실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각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5개 교과를 중심으로 혹은 비교과 교육활동 즉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음악교과교육에서 상당부분의 창의·인성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의 낭만 음악 시대에 있었던 시민계급에 바탕을 둔 아마추어 합창운동이나 CRM과 연계하여 지역 축제에 교육청이 주관하여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방안 등을 음악교과교육의 내용과 연계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CRM을 작성하여 인터넷(창의·인성교육넷, <http://crezone.net/index.do?todo=crm>)을 통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 CRM의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역사와 관련된 장소나 시설을 발굴 소개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원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음악교과교육에서 상당부분의 CRM 관련 소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서 음악관련 CRM에 상당하는 소재들을 발굴하여 학습에 활용하고 소개해 하는 것이다. 이것은 20세기 종족음악학자들을 인지적 도제로 하고, 종족음악학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창의·인성교육넷의 CRM 검색창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결과물을 포토폴리오 형태로 인터넷에 탑재하여 edupot(<http://www.edupot.go.kr>)에서 초·중·고교를 연계해 꾸준히 관리하도록

있다. 이 부분에서 학부모는 촉각을 세우게 되는데, 자동봉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작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한 이 시스템에서는 개인 학생의 초·중등학교 12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악교과교육에서 자동봉진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 활동을 돕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예컨대, 교내 음악관련 동아리활동이나 교내외 음악관련 봉사활동을 교과교육의 내용에 삽입하여 관련 활동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다.

셋째,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교과와 비교과 교육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음악교과교육은 음악 학습의 목적에 의한 음악교육의 성격, 공교육 일반의 목적에 의한 교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음악교과교육은 이 두 가지 성격에 의해 인터페이스를 상고할 수 있다. 우선 음악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교육의 성격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의 조절에 의한 것이고, 교과교육의 성격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을 기본 소양교육의 역할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음악에 의한 교육’이다. 또한 음악교과교육은 이 둘을 합한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에 의한 교육으로 그 영역을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인용한다(윤성원 2010b, 4).

“음악은 불변적 요인과 가변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이강숙 2004, 9)이다. 즉 음악은 인간의 정신활동 속에서 함목적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그러나 ‘음악’을 ‘교육’으로 가져 온다면, 음악은 그 자체로 울리며 의미를 만드는 ‘순수’한 교육적 재료로 쓰일 수는 없다. 이는 음악교육 또한 모든 교육활동이 나름의 목적 설정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갖기 때문이다(주대창 2008a, 178). 즉 나름의 목적 설정에서 ‘음악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에 의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리고 이는 다시 두 가지의 전개과정에 의해 ‘음악교과교육’으로 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목적으로서의 이해와 선택의 전개과정이다. 즉 음악교과교육의 목적을 ‘음악행위나 음악지식의 교육’에 두느냐, ‘음악에 의한 교육’에 두느냐의 선택이다.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나 음악지식의 교육에 목적을 두는 엘리트음악교육이 아니므로, ‘음악에 의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목적에 따른 선후 또는 주종 관계 확립의 전개과정이다. 국가에서 원하는 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인 음악교과교육은 ‘음악교육’과 ‘공교육’의 유기적 상호보완 관계에 의한 사회적 실체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국가에서 원하는바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음악에 의한 교육’이 교수·학습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은 ‘음악에 의한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에서 음악

13)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시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음악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을 통한 교육으로 구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2)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구분은 음악교과교육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음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시점과 장소의 교육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또한 시안에서는 “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은 주로 음악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을 다루되 일반인의 소양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2)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 역시 이 연구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윤성원 2010b, 4).

성격은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의 ‘음악’이어야 한다.

음악교과교육을 놓고 볼 때, 음악교과교육의 두 가지 성격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기존의 음악교과교육의 교과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인 ‘창의·인성교육’을 수용하게 한다. 또한 이것은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기존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으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국한하여 공교육 일반에서 총체적으로 음악교과교육의 위상을 위축되게 한 원인의 제거 방안이다. 아울러 이것은 그 동안의 음악교과교육이 활동과 이해로 나누어지는 —이분법, 혹은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나름 의미 있게 도입된 그러나 어색한 조합인 생활화를 포함한 ‘2+1’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의해 실기위주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하여야 한다는 교과교육학 내의 뿌리 깊은 강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3. 음악학의 지식, 음악교과교육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가능성

음악교과교육의 내용과 음악학의 지식은 서로 관련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주대창 1997, 195). 그도 그럴 것이 음악학은 스스로를 분류하면서 음악교육학을 분과학으로 넣어두었지만 공교육의 영역인 음악교과교육에까지 지식을 양상해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음악교과교육도 스스로의 방법에 몰두하여 음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악학의 지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는 음악학의 지식이 별다른 효용이 없었던 것도 음악교과교육의 내용과 음악학의 지식이 서로 관련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시대에 이르러 음악교과교육에는 더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고, 음악학의 지식 또한 축적된 지식을 고립시키지 않고 적의한 목적에 사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인 ‘창의·인성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며, 그 인터페이스를 음악학의 지식에서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학은 음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이다(이강숙 1990, 11). 또한 물리학적·심리학적·미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의 음악예술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지식 영역이다(Stanley 2001, xii 836). 음악학은 순수 학문의 입장을 견지한다. 200여 년 동안의 음악학 연구는 음악예술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음악의 가치를 미 또는 미적 체험에 두는 태도가 우세하였다. 순수 학문이 그러하듯 음악학도 축적되고 전문화된 지식의 분야에 따라 분과학문을 가진다. 그러나 음악학과 그 분과학문 스스로는 사회와의 소통에 무관심하여 인간의 삶에 음악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홀대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학문의 유용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권오연 2010, 5-8). 그 해결책으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영역에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학과 그 분과학문의 지식 즉 연구 결과는 음악교과교육의 실용적인 목적과 접목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윤성원 2010b, 4-6)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인용한다.

① 구조를 가진 ‘음악’.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구조를 가진 음악이어야 한다. 음악교과교육에서 음악이 학문의 구조를 가진다면, 첫째, 음악과 교육 과정의 구성에 대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음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음악교과교육의 본질,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게 한다. 또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학문적 형태를 통해서 세분된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구조적인 요소를 형성하도록 하여, 내용에 있어서 강조하여야 할 것과 주변의 것으로 구분하여 준다. 이를 통해, 학습활동을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한다. 둘째, 음악교과교육이 음악 본질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음악교과교육이 음악에 대한 단순화를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음악에서의 고등 지식과 하등지식 간의 급간을 좁혀 음악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음악 연구의 개념과 정통성을 정립시켜준다. 셋째, 음악의 전이 가능성을 통제한다. 즉 음악교과교육의 학습활동을 통해 지적 흥분을 일으키며, 음악에 대한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음악교과교육의 학습활동을 통해 다른 학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모든 학습의 공통된 특징을 지적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해 기억의 정확성, 명료성, 지속성과 주어진 학습활동에 의한 전이 가능성을 통제한다. 넷째, 음악교과교육의 교수 효과를 높여준다. 즉 음악교과교육에 임하는 교수자의 교수자료의 준비에 지침이 되며, 교수와 학습의 강조점을 설정하여 준다(이경섭 1990, 72-73; 신해우 외 1996, 53). 이를 통해 음악 교수자의 교수에 대한 정당성과 교수법에 도움을 준다.

②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의 음악은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적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른바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이어야 한다.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은 음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 즉 “음을 낼 때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G. Adler 1885, 5) 음악학(musicology)¹⁴⁾의 지식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음악학의 지식은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물리학적·심리학적·미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의 음악예술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 지식 영역”(Stanley 2001, xii 836)이기 때문이다. 음악학의 지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교육적 재료로 활용된다. 첫째, 음악에 대해 언급한 음악학의 지식은 생태적으로 수집·분류·평가하여 분과학을 양상하고 그 특성상 일정한 행위로 제시한다(이강숙 1985, 163-166). 둘째, 분과학에 의해 제시된 음악학의 지식은 연주실제나 음악학의 다른 분야 또는 인접한 학문으로 다시 유입되어, 사회·문화·역사의 체에 걸러진다(김원명 외 2007, 11). 셋째, 여기에 교육목적을 함의하면 ‘음악학의 지식’은 스스로의 목적을 제거한다. 넷째, 결과적으로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을 활용한다.

교육목적을 함의하여 스스로의 목적을 제거한 음악학의 지식은 음악교과교육으로 가져와 학습활동 영역에 따라 구분하면, <표 1> 음악학의 지식과 음악교과교육 학습활동 영역 비교에서와 같이 음악행위(performance)·텍스트(text)·컨텍스트(context) 학습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성원 2008, 1).

14) 텍스트적 기초음악이론에서부터 음악행위를 주도하는 음악실제, 그리고 음악실제에 따른 컨텍스트적 응용음악이론에 이르기까지 음악 자체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을 연구의 주제로 삼으며, ‘음악실제, 음악실제의 본질, 음악실제의 맥락’에 대해 탐구한다(Stanley 2001, xii 836-846; Hibberd 1959, 21-31; Spiess 1953, 165; 서우석 1984, 22-32; 김춘미 1995, 1-25; 채현경 2007, 15-16; 윤성원 2008, 1 재인용).

<표 1> 음악학의 지식과 음악교과교육 학습활동 영역 비교(윤성원 2010b, 5)

음악학의 지식		음악교과교육 학습활동 영역
음악실제	연주실제(국악, 실용, 대중음악 포함)	음악행위 학습활동 (performance)
음악실제에 따른 본질적 지식	악곡론, 문헌학, 용어학, 양식론, 악기학, 악기 제작, 악곡기초학, 기보학	텍스트 학습활동 (text)
	음악음향학, 성대와 청각의 생리학, 악기 연주 생리학, 청취 심리학(소리를 들을 때 반응과정)	컨텍스트 학습활동 (context)
음악실제에 따른 맥락적 지식	전기학(傳記學), 화상학(畫像學), 음악역사학, 음악심리학, 음악치료학, 음악사회학, 음악교육학,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악인류학, 음악비평, ...	

③ 재료로서의 ‘음악’의 내용과 방법. 내용 면을 살펴보면, <표 1>에서 제시하는 음악교과교육의 학습활동 영역 중 음악행위 학습활동은 주로 ‘가창·기악·감상·창작’ 등의 학습활동이다. 또한 텍스트 학습활동은 ‘음악실제에 따른 본질적 지식’이 주요 내용이 되며, 주로 기보로 표현되는 지식에 대한 학습활동이다. 아울러 컨텍스트 학습활동은 ‘음악실제에 따른 맥락적 지식’이 주요 내용이 되며, 음악이 연주될 때의 맥락, 감상될 때의 맥락, 창작될 때의 맥락 등의 지식에 대한 학습활동이다(윤성원 2009, 20). 요컨대, 제시한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에 대한 이 세 가지 학습활동은 ‘음악에 대해 모든 것’(사회·문화·역사 등)을 언급한 것이므로,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의 교육목적과 “완전하게 되기 위한 만남”(채현경 2007, 6; 윤성원 2009, 20 재인용)을 주선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음악행위에도 그에 해당하는 음악 본질의 지식이 존재할 것이며, 맥락의 지식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윤성원 2008, 11-37). 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음악교과교육이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으로 완전한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시한 세 가지 학습활동과 공교육의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을 ‘통합’(integration)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 등과의 통합이 가능한 것은 첫째, 인간 자체가 통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최계천 2007, 37), 오늘날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통합”(E. O. Wilson 2005, 8)을 긍정적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지속된 학문의 분과화한 실재에 대해 다 각도로 고찰하여 완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으로 한 실재에 대해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과된 그 실재의 관련 학문을 모아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소비 집단의 성격이나 범위, 수요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함의하고,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일 때 완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교과교육은 ‘통합된 학습활동’을 통해, ‘음악행위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을 자극받게 하고, ‘텍스트 학습활동’으로 ‘인지적 영역’을 개념화하게 한다. 또한 ‘컨텍스트 학습활동’으로 ‘정의적 영역’을 가치화해, 학습활동을 완성할 수 있다(윤성원 2009, 22).

,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해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에 의한 교육’을 통합해 교수·학습한다면, 공교육의 도구로서 ‘창의·인성교육’을 교과나 비교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음악학의 지식은 사회와의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Ⅲ. 조절 방법: 기준¹⁵⁾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 다섯 개의 항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는 이 중에서 내용 항에 초점을 둔다. 이는 성격¹⁶⁾과 목표 항에서 음악교과교육의 교과적 고유성과 공교육 일반의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포함하여 목적과 목표로 기술하며(윤성원 2010a, 1), 내용 항은 성격과 목표 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세부 내용을 조직하여 구체화하기 때문이다(민경훈 외 2011, 167). 이하 고찰하는 조절 기준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항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다.

- 15) 장의 1-3절은 연구자가 음악교육공학 11호에 게재된 선행연구인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2010)’의 이론적 배경 부분에 해당하는 6-10쪽을 이 연구의 논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 16) 연구자는 선행연구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2010)’의 18-19쪽을 인용하여 성격 항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연구자의 성격 항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조절 기준을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은 교과교육의 본질 및 의의, 필요성, 교과 교육의 목적(goals), 정당성, 타 교과와 구분되는 내용 및 방법상의 특징, 초·중등교육 각각의 특성 및 연계성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7). 따라서 개별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사회적 실제로 제공되는 교과교육의 위상에 대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의 특징은 제1·2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었으나,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적에 대해 관련짓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곧 고시될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현재의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은 ‘음악의 본질, 음악 교과의 본질, 음악 교과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음악교과교육의 본질 및 의의, 필요성, 목적, 정당성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적에 대해 관련짓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한 하위의 내용 항에서도 ‘활동·이해·생활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음악행위 학습활동 즉 ‘가창·기악·감상·창작’ 등의 학습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며, 텍스트 학습활동 즉 ‘음악실체에 따른 본질적 지식’의 학습활동은 음악행위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이해’ 영역에서 일부 제시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 없이 생활화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과교육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음악의 모든 교육 행위, 즉 ‘음악교육’에 대한 본질 및 의의, 필요성, 목적, 정당성, 내용 및 방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교과교육이 음악의 가치와 힘을 바탕으로 공교육에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교육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회 구성원의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명확한 관점의 제시와 관련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주대창 2008a, 173). 그 방법은 소비 집단의 성격이나 범위, 수요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후, 음악교육의 목적을 제거한 ‘교육재료로서의 음악’으로 공교육의 교육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컨텍스트 학습활동, 즉 현재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이해’와 ‘생활화’ 영역과 유사한 음악실체에 따른 맥락적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에 의한 교육’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음악행위 학습활동과 텍스트 학습활동 영역을 제거하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컨텍스트 학습활동 영역을 통합해 세 가지 학습활동 영역을 모두 고르게 교육 행위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이 음악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포함해 ‘음악에 대해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도, 공교육의 교육목적에 따라 연계성과 계열성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윤성원 2010b, 18-19)

1. 교육적 보편성

공교육에 속한 교과교육의 하나로서 초·중등학교를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조절함에 있어서 초·중등학교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음악교과교육 내용의 설계에 있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학교급별 편성·운영에 대한 근거 등 교육적 보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과 교육과정¹⁷⁾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고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이라야 공교육이 갖는 교과의 연계성과 계열성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공교육 일반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아래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한 후,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교육과학기술부 2009a, 1) 구성방침을 정하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학교급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3);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6);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8)

이에 따라, 음악학의 지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서, 첫째,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이념 부분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둘째, 구성방침에서 적시하고 있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즉 초·중·고생들의 특색에 맞는 음악학의 지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은 초·중등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실재이며 집단적 합작품으로서의 교육적 보편성을 갖춘 음악교과교육이어야 한다. 이에 음악교과교육 연구자와 음악교사는 그 수요를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그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화와 조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이 특수한 교과의 성격만을 주장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7) 문서인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제시하는 이념, 목적, 구성 방침에 따른 교육적 보편성을 전제한 명료한 교육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구성요소로 학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인가(교육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경험을 선정해야 하는가(교육내용), 이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해야 하는가(교육방법), 이 목표의 달성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교육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R. W. Tyler 1949; 손영환 외 2003, 191 재인용; 윤성원 2010b, 7).

2. 교과적 시사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교과교육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교육적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관련성을 유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7)하여 교육적 시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0)을 음악학의 지식에서 끌어와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으로 계획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그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지난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한 음악교과교육의 반영 계획은 27개의 요구 사항 중 7개의 요구 사항, 즉 ‘인성 교육, 소비자 교육,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문화예술/문화유산 교육, 국제이해 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 교육, 여가활용 교육’을 반영하였다. 음악학 지식의 조절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20개의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의 인용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범 교과의 주제이며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이다. 음악교과교육은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타 교과와의 연계성과 계열성에 고려하여 교수·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음악교과교육이 고립된 시대에 존재하는 개인만을 위한 기능위주의 교육이 아닌 시사성을 갖춘 교과교육이기 때문이다.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의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교육과학기술부 2009, 18)

3. 교과교육으로의 연계성과 계열성

음악교과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교과교육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교육으로서 공통적이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연계성과 계열성이 존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음악학의 지식을 조절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를 논의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교과교육의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성격은 첫째, 공교육이 어떠한 사회를 ‘요구’하고 어떠한 질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교과교육의 시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해, 태도, 기능’으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음악교과교육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목적에 따라 교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구현

교과 간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교과교육은 학습자에게 맞도록 교육내용을 계열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과교육은 학습자의 일반적인 경향성—흥미, 준비성, 학습 환경, 개성, 개인차, 발달상황, 지능정도 등—과 그 경향성 위에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알맞도록 조정하고, 전개할 방법을 구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처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율성, 지적 흥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국에는 자기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학제는 초·중등학교로 구분하여 음악교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에 있어서 계열성을 함의해 수준에 적합한 구성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교과교육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구성·전개해야 한다. 조성기 외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118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조성기 외 2009, 22), 교과교육의 성취기준은 교과교육에서 교육내용 구성 및 전개의 지침이며, 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넷째, 교과교육은 내용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교육방법을 탐색하여 학습단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 학습단계는 감지·행위·가치화의 단계를 거친다. 이때 감지의 단계에서는 동기유발, 목표인지가 일어나며, 행위의 단계에서는 ‘인식·기억·발견·연결’의 피드백을 통해 지각, 반응, 창의적 표현 발달, 개념화가 일어난다. 또한 가치화의 단계에서는 가치판단을 통해 평가·만족·애호심이 이루어진다(윤성원 2009, 23).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각 단계 별에 적합한 음악학의 지식이 무엇이며 그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교육은 학습내용과 학습과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내용은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의 결과이며, 학습과정은 지식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나 방법으로 학습자의 실제적인 활동이다. 이 두 면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교과교육은 학습과 실제 생활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교육을 이룬다. 여섯째, 교과교육은 학습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교과교육은 하나의 사회적 실체에 대해 완성된 시각을 제공한다. 음악교과교육은 일대 일인수의 교육이 아니므로, 일대 다인수의 교육에 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이를 통해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설계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과교육은 변혁성과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교과교육은 사회적 실체의 사적 관점에서 흐름을 인지하여 변혁을 주도하며, 또한 변혁에 대해 준비하여야 한다. 음악은 세계 곳곳의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음악 스스로가 통합되고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음악교과교육은 이에 대해 인정하고 변혁에 대한 포괄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여덟째, 교과교육은 교육내용에서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한다. 교과교육은 “동(同) 목표 다(多)경험의 원리”(신동로 2007, 121)에 의해 각 교과마다 교과교육의 본질 및 의의, 필요성, 목적, 정당성, 내용 및 방법 등이 같지 않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실체에 대해 접근하는 교육내용에서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한다. 음악교과교육은 인간이 하는 정신적인 예술을 다루는 것이므로 타 교과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음악행위에 기초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여 교과교육의 내용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수·학습활동의 수행가능성과 실용성

내용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음악적 소양을 배양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음악에 의한 교육’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음악에 의한 교육’의 내용을 통해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때, 수행가능성과 실용성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수행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음악에 의한 교육’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과교육은 지난 8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음악에 의한 교육’을 간과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음악수업은 노래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음악교과교육은 정서교과교육으로, 음악교과는 기능교과로 여겨지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윤성원 2008, 2). 이 부분에 있어서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방대하여, 차마 ‘음악에 의한 교육’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능성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음악에 의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하여 내용 설계 단계를 거친다면, 음악학의 체계화된 지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학년(군)에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교과교육이 교수·학습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다면 실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음악교과교육이 고려하여야 할 것은, 첫째; 음악교과교육은 일대 다인수의 학급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음악교과교육은 음악을 도구로 학교 내의 교과나 비교과 교육활동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교수·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점, 셋째; 음악교과교육은 교수·학습의 환경 속에서 특정 전공의 교사와 특정 환경의 학생들이 만나 교수·학습을 이루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실용적 목적을 함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더 나아가 넷째, 음악교과교육은 인간의 몸과 정신이 이루어내는 것이므로 다양한 원리를 적용하여 어떠한 교수·학습 환경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초·중등학교 현장의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 그리고 ‘음악에 의한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음악적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서 실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음악과 관련된 맥락적 지식을 폭넓게 습득함으로써, 음악활동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음악을 통해 삶을 즐길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수용 가능성

아래의 <표 2>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발표될 시점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향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항 비교(교육인적자원부 2007, 79 구분명일부수정)

구 분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다른 점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활동의 2개 영역 ○ 이해는 7개의 개념 ○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개 영역 ○ 학년군별(3~4, 5~6, 7~9, 10학년)로 제시 ○ 필수 학습내용과 활동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이해, 생활화 3개 영역 ○ 중영역 삭제 ○ 학년별 필수 학습내용과 활동제시 ○ 활동, 이해, 생활화의 연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 영역 신설 ○ 국악내용 증대 및 체계화 ○ 내용의 명료성 강조 ○ 학습내용 대폭 축소 ○ 악곡 종류의 다양화 ○ 음악의 역할과 기능 강조
학년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에 따른 내용 상세화 ○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 ○ 학년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 진술 ○ 국악 내용의 상세화 ○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내용 제시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에 따른 내용 상세화 ○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 ○ 학년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 진술 ○ 전체적 학습 내용 대폭 축소 ○ 국악 내용의 증대 및 체계화 ○ 음악의 역할과 기능 강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제시(악곡 종류 다양화) ○ 생활화 영역 신설, 학교내외에서의 활용 강조 	

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다른 점은 <표 2>에서와 같이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첫째; 활동, 이해, 생활화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된 것과, 둘째; 중영역이 삭제되고 생활화 영역이 신설되면서 각 영역별 연계를 강조한 것, 셋째; 학년별 필수 학습내용과 활동을 제시하면서 학습내용을 축소한 것, 넷째, 국악의 학습내용 증대 및 체계화한 것, 다섯째,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제시하도록 하여 악곡 종류의 다양화를 꾀한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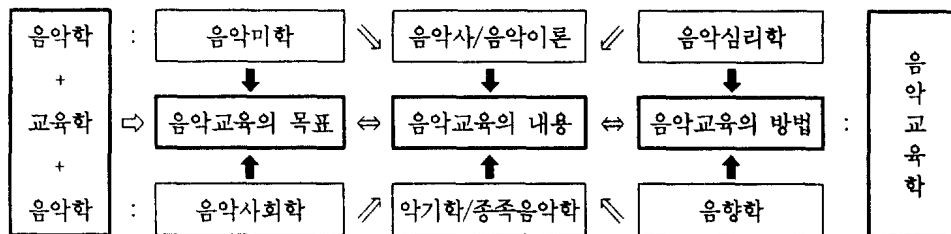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구성을 시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항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다른 방식과 유사하게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8차에 걸쳐 진행된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내용과도 대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 물론 연구자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내용 체계에 대해 오류가 있어 완전 교체하자거나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음악과 교육과정의 흐름이라는 전체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당연한 결과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여전히 음악교과교육학자들이 교과교육의 고립을 당연시 하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의 타당성은 대중이나 국민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교과 지식과 기능의 본질적 구조 또는 체계에 의해 결정”(최은식: 교육인적자원부 2006, 81)해야 한다고 하면서 음악교과교육이 가져야 할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무시한다거나, ‘음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부분이며,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개인의 감정 상징화의 매체이며, 심미적 경험을 주는 것’(석문주 2000, 3-4) 또는 “음악과는 도구적 성격보다는 음악 그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교과”(유선미: 교육인적자원부 2006, 60)라고 하면서 음악교과교육의 교과적 고유성만을 강조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것이다(윤성원 2010b, 2).
 각설하고, 작금은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있다. 연구자가 아래에 제시하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항의 요약처럼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교과적 고유성에만 집중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함의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면, 개정될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공교육 일반의 패러다임을 따라 잡기는 요원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항 요약

영역	내용
	표현하기, 부르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등
이해	리듬 꼴, 화음, 빠르기말, 장단, 가락, 음계, 마침꼴, 형식, 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 등
생활화	태도 갖기,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음악 활용하기,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등

그렇다면 기존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음악교과교육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주대창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기 즈음에 음악학과 음악교과교육의 관계를 논하면서 음악학의 지식을 조절하여 음악교과교육 전반의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의 확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주대창 1998, 213).



(그림 2) 음악학과 음악교과교육의 관계(주대창 1998, 213)

또한 주대창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즈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성의 예를 제시하면서(민경훈 외 2011, 179), 음악교과교육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의 예(민경훈 외 2011, 179)

대영역	중영역	설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들 · 음향 창작 · 간단한 움직임 및 동작 · 목소리 · 간단한 음악적 형식들 · 4개의 음악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노래 반주 · 기초적 연주곡 · 교실 악기 · 악보 · 구성요서 · 3명의 작곡가
활동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하기/말하기 및 노래 목소리 · 악기 연주하기 · 음악 발견하기 · 음악 듣기/듣기 교육 · 음악 전이시키기 · 음악에 대해 숙고하기 	취지 및 내용의 구체적 제시
고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과 정돈으로서의 음악 · 표현, 서술, 작용으로서의 음악 · 문화적 기록물 및 유산으로서의 음악 · 생활에서의 음악 	

<표 4>에서와 같이 주대창이 소개한 ‘수업소재’에서부터 ‘활동방식’을 거쳐 ‘고찰방식’으로 이어지는 내용 체계의 구성 방식은, 음악이라는 수업소재를 통해 활동하고 다양한 지식을 통해 고찰하게 함으로써, ‘음악에 의한 교육’을 교수·학습 활동에서 이루게 할 수 있는 모델로 사료된다. 더욱이 설명 방식으로 ‘취지 및 내용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 등을 함의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보완함으로써, 음악교과교육에서 음악학의 지식을 조절해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방향을 제시한 예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내용을 설계한다면 기존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IV. 결과: 내용 설계

음악학 지식의 조절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의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음악학 지식의 조절에 의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 설계

동과정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에 의한 교육		
연계성 계열성	내			교과 내/교과 간			교과 내/교과 간/비교과 간		
학습활 동유형	가창/기악/창작/감상			가창/기악/창작/감상			가창/기악/창작/감상		
학습활 동과정	음악행위	텍스트	컨텍스트	음악행위	텍스트	컨텍스트	음악행위	텍스트	컨텍스트
음악학 의지식 관련 분야	연주실제 (국악, 실용, 대중 음악 포함)	성대악기 의생리학, 악기주 의생리학, 기악작 품의음향 특성(소리 를들었을 때의반 응)	전기학 (傳記學), 화상학 (畫像學), 음악역사 학, 음악 심리학, 음악치료 학, 음악 사회학, 음악교육 학, 음악 철학, 음 악인류학, 음악비 평	연주실제 (국악, 실 용, 대중 음악 포함),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악비 평	악곡론, 악곡용어 학, 악곡 양식론, 악기학, 악기제작 기초학, 기보학	전기학 (傳記學), 화상학 (畫像學), 음악역사 학, 음악 심리학, 음악치료 학, 음악 사회학, 음악교육 학, 음악 철학, 음 악인류학, 음악비 평	연주실제 (국악, 실 용, 대중 음악 포함), 음악심리 학, 음악 치료학, 음악미학, 음악비 평	전기학 (傳記學), 화상학 (畫像學), 음악역사 학, 음악 심리학, 음악치료 학, 음악 사회학, 음악교육 학, 음악 철학, 음 악인류학, 음악비 평	전기학 (傳記學), 화상학 (畫像學), 음악역사 학, 음악 심리학, 음악치료 학, 음악 사회학, 음악교육 학, 음악 철학, 음 악인류학, 음악비 평
저학년 을중심 으로 학습 활동 유형 의단 편적 인	· 바르 셀로 노래 하기 · 바 른 호 른 연 주 하 기 · 음 악 만 들 기 · 악 곡 들 기	· 바 른 노 래 의 리 야 기 · 바 른 연 주 의 호 른 연 주 하 기 · 음 악 의 구 성 요 소 알 기 · 악 곡 의 느 낌 을 음 악 어 로 표 현 하 기	· 가 수 (성 악 가, 소 리 꾼 등) 의 노 래 하 기 · 연 주 자 (피 아 니 스 트 등) 의 연 주 하 기 · 작 곡 가 의 작 곡 하 는 방 법 알 기 · 음 악 회 감 을 표 현 하 기	· 동 요 부 르 기 · 한 도 막 의 피 아 노 곡 연 주 하 기 · 간 단 한 타 악 리 듬 짓 기 · 음 악 적 으 로 생 각 하 는 악 곡 들 기	· 동 요 의 구 조 알 기 · 피 아 노 와 한 도 막 의 피 아 노 곡 구 조 알 기 · 리 듬 의 원 리 알 기 · 악 곡 을 특 징 짓 는 요 소 알 기	· 동 요 의 유 래 알 기 · 연 주 한 피 아 노 곡 의 유 래 알 기 · 생 활 속 의 사 용 예 알 기 · 감 상 하 는 악 곡 과 유 사 한 악 곡 찾 기	· 인 성 교 육 관 련 노 래 부 르 기 · 피 아 노 를 활 용 하 는 창 의 성 주 제 로 한 악 곡 만 들 기 · 마 음 이 편 안 해 는 음 악 유 래 알 기	· 인 성 교 육 관 련 노 래 의 활 용 예 를 알 기 · 창 의 성 으 로 연 주 하 는 때 의 악 곡 의 유 의 성 을 알 기 · 창 의 성 주 제 로 한 악 곡 의 악 적 유 의 성 을 알 기 · 마 음 이 편 안 해 는 음 악 의 활 용 예 를 알 기	· 인 성 교 육 관 련 노 래 의 활 용 예 를 알 기 · 창 의 성 으 로 연 주 하 는 때 의 악 곡 의 유 의 성 을 알 기 · 창 의 성 주 제 로 한 악 곡 의 악 적 유 의 성 을 알 기 · 마 음 이 편 안 해 는 음 악 의 활 용 예 를 알 기
학년(군)	초등3,4	초등3,4	초등3,4	초등3,4	초등3,4	초등3,4	초등3,4		
	초등5,6	초등5,6	초등5,6	초등5,6	초등5,6	초등5,6	초등5,6	초등5,6	초등5,6
	중7,8,9	중7,8,9	중7,8,9	중7,8,9	중7,8,9	중7,8,9	중7,8,9	중7,8,9	중7,8,9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V. 요약 및 제언

연구의 목적은 음악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교과교육이 내용을 조절해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가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음악교과교육은 지난 8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금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인성교육’과 같은 시대적 패러다임을 함의할 수 있는 ‘음악에 의한 교육’을 간과해 왔으며, 중국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음악수업은 노래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음악교과교육은 정서교과교육으로; 음악교과는 기능교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금에 이르러서는 차후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그 위상이 불안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8차례의 개정을 통해 다져진 교과적 고유성을 함의하면서도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포함한 교과 교육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전제하여야 할 것은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의 도구라는 인식이며, 공교육 일반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음악교과교육의 존재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상고하였다. 음악교과교육의 인터페이스는 첫째, 학교에 영향을 주는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교과와 비교과 교육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연구자는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음악학의 지식을 조절하도록 선택하고, 음악교과교육을 통해 음악학의 지식이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음악학의 지식은 음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이지만, 학문적 목적을 제거하고 교육적 재료로서의 지식을 가져온다면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서 인터페이스 확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적 목적을 제거한 음악학의 지식을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으로 가져 오는 방법, 즉 조절 기준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이는 교육적 보편성과 교과적 시사성, 교과교육으로서의 연계성과 계열성, 교수·학습활동의 수행가능성과 실용성, 기존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수용 가능성 등의 제고로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결과로 내용 설계를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 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과 교육활동으로서 음악수업의 내용뿐 아니라, 비교과 교육활동으로서 학교의 전반과 사회에서의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계로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현 시기 음악교과교육의 과제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향 제작에서 고려되어야 할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의 계열성에 따른 내용 체계 효율성 탐색. 기존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향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나름의 계열성 속에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계열성이 수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내용 체계에서 계열성을 갖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효율성 측면의 내용을 다루

연구이다.

둘째, 음악교과교육 내용에서 ‘음악에 의한 교육’의 영역과 내용 탐색. 음악교과교육이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함의한 교과적 고유성을 갖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 향에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교과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내용 향에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체계를 갖추어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연구이다.

twinstarking@nate.com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a.
_____. 보도자료 2009. 12. 17(목). 2009b.
_____.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 <http://cutis.mest.go.kr/>. 2011.
_____. 창의·인성교육넷, <http://crezone.net/index.do?todo=crm/>. 2011.
_____. edupot, <http://www.edupot.go.kr/>. 2011.
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요 75, 2007.
_____.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_____.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 자료집. 2006.
권오연. 사회와 소통하는 음악학을 꿈꾸며. 음악과 문화 22. 5-8, 2010.
김대현 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2002.
김세균. 통합적 학문연구와 통섭의 기본방향. 진보평론 41. 194, 2009.
김영석. 교과교육학의 위상과 교원양성대학의 구조. 사회과교육연구 15-2. 26, 2008.
김원명 외. 생활 속의 음악이야기. GMK. 2007.
김정래. 교과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섭’의 의미와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12-3. 1025, 2008.
김준성. 통섭의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29. 68, 2008.
민경훈.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37. 24, 2009.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167, 2011.
박행렬. 한국 법과학의 영역 간 통섭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행정학회보 34. 123, 2009.
성경희.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연구자료 ORM 2005-6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연구보고 RRC 200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_____. 음악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연구보고 CRC 2004-4-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_____. 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I)(연구보고 RRC 2003-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 손영환 외. 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3.
- 신동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형설출판사. 2007.
- 신혜우 외. 교육과정론. 찬미사. 1996.
- 양종모 외.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2)(RRC 200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 _____.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1)(RRC 200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 윤성원.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10. 3-4, 2010a.
- _____.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향의 모의 제작. 음악교육공학 11. 2, 5, 2010b.
- _____. 컨텍스트를 포함한 음악교과서의 구성. 음악교육공학 8. 2009.
- _____. 음악하기에 기초한 통합음악교육 연구. 경성대박논. 2008.
- 이강숙. 음악이란 무엇인가. 낭만음악 62호. 2004.
- _____. 음악과 지식. 민음사. 11, 1990.
- 이경섭.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교육과학사. 1990.
- 주대창. 음악학과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17. 195, 1997.
- 조성기 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 채현경. 새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궁리. 2007.
- 최재천 외.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이음. 2007.
- 최재천·장대익 역. Wilson, E. O. 지식의 대통합 통섭. (주)사이언스북스. 200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2006.
- _____.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 KICE 연구리포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허숙 외. 교육과정과 목적. 교육과학사. 2008.
-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on Publishers limited. xii 836, 2001.

Abstract

A Design of the Content of Music Education by Accommodation of Musicology

Sung-Won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content items of a music curriculum with expanded interface by accommodating the knowledge of musicology with the content of music education. The research background involves offering ways to communicate the knowledge of advanced but yet alienated musicology with society and applying it and accordingly enhancing the value of its existence. It also attempted to "test music education ontologically" by accommodating the content of current music education, which is isolated, has gone into mannerism, and become ambiguous with its identity. The investigator chose music education that led musical acts in public education as the medium to promote smooth communication of musicology knowledge with society and set out to design the content of music education so that the text-based content area of music education could accommodate the knowledge of musicology and be in equilibrium with it, thus attaining the true goals of music education required by the times.

KEY Words: musicology, music education, music curriculum, subject content

■ 접수일(2011년 6월 30일), 수정일(2011년 8월 4일), 게재확정일(2011년 8월 6일)